

시연(施連) 칼럼

학산실기鶴山實記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효孝 상분침고(嘗糞晝苦)로 어머니를 지켰다



글: 권오신
대중화 중보편집위원장, 칼럼니스트

안동권문전년 역사에서 효손(孝孫)으로 가장 이름난 현조(賢祖)라면 경상남도 밀양(密陽)에서 우거(寓居)하셨던 학산공(鶴山公)일 것 같다. 효(孝)는 옛부터 억지로 힘쓰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성(天性)에서 나온다고 했던 고사(故事)처럼 학산공의 효행을 간추려 보면 절로 탄음(彈音)이 나오게 된다.

학산공의 휘諱는 삼변(三變, 24세), 자는 요경(了經)이다.

팔대조 八代祖이신 북야공파(僕射公派) 감정공(監正公, 휘諱 집덕執德)과 양산군수공梁山郡守公(휘諱 촌付), 그리고 생원공生員公(휘諱 계복繼福, 양산공의 둘째 아들)의 육대조六代孫이시다. 선조(宣祖) 10년(1577, 丁丑) 선대(先代)가 자리 잡은 경남 산청(山淸) 단성(丹城) 고을 도산(都山)에서 태어나셨다.

학산공은 여섯 살 때 불행하게도 부친(父親, 휘諱 주鍾, 승사랑承仕郎)을 여의게 된다. 아들 교육을 우려했던 모부인(母夫人, 파평윤씨坡平尹氏)이 밀양에서 관직생활을 하신 당숙 직장공(直長公, 휘諱 차)에게 공부를 맡기면서 밀양이 자연스럽게 우거지가 되고 훗날 밀양의 임향조가 되셨다.

여섯 살 나든 해 부친(父親, 휘諱 주鍾) 상(喪)을 입은 학산공의 애곡(哀哭, 슬피 울)이 얼마나 슬프게 들렸던지 빈소(殯所)를 찾은 문상(聞喪) 손님들을 두 번 씩이나 울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효손으로 알려지게 된다.

경사(經史, 경서와 사기) 등 당숙이 가르친 학업을 놓친 일이 없어 성장할수록 비범한 학재(學才, 학문에 대한 뛰어난 재능)로 그 이름이 밀양 향내를 넘어 인근 고을에 알려졌다.

학산공은 열여섯 살이 되던 해인 선조 25년(1592) 조선인 60만 명이 생목숨을 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어머니와의 생이별로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시기에도 학산공은 나라와 어머니 걱정을 놓치지 못했다.

16살 어린 소년이었지만 노략질과 사람을 해치는 왜적을 피해 선고(先考)의 위패(位牌)를 챙기고 모부인을 업고서 대산(창녕 화왕산)으로 피난 생활을 시작한다.

학산공은 그 즉시 피난지와 가까운 창녕(昌寧)의 유림(儒林)들을 설득, 군진(軍陣)을 치고 의병(義兵) 활동에 들어갔다. 열여섯 소년이지만 용력(勇力)이 넘치고 왜적을 공략하는 전투 지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금방 신임을 얻었다.



완재정 전경

소년(少年) 학산공은 치기를 부리는 영산(靈山) 고을 원을 피해 군진(軍陣)을 옮기다 마주친 왜적들의 숫자에 밀려 모부인과 함께 잡혔다. 이 순간 공은 어머니를 안고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위패와 어머니는 해치지 못한다.”고 소리치니 왜군(倭軍) 지휘자도 “효자를 죽이게 되면 군의 명성이 떨어진다”면서 윤씨(尹氏)를 돌려보내는 대신 공은 포로가 되어서 일본으로 끌려가 산양도(山陽島)에서 기나긴 세월을 보냈지만 한 시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다.

“금오(金烏, 삼족오三足鳥 해를 벗어나고 사는 세 발 까마귀)가 날개를 빌려준다면 북당(北堂, 고향 밀양을 지칭)에 계신 아버이를 만나리라.” 이 시(詩)를 짓고 조선을 향해 이른 아침 사배(四拜)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포로를 지켰던 왜인(倭人)들까지 흠모했었다고 전해진다.

“배일(拜日, 해에게 절 1)
산출부상하日出扶桑下에/ 해는 부상(동쪽 바다 해가 뜨는 곳) 아래에서 떠서
응종고해빈應從故海濱이라/ 응당 고국 바다 물가로 가리라.
금오여차익金烏如借翼하면/ 해에게 날개를 빌린다면
귀배북당진歸拜北堂親이라/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절할 수 있을 텐데.

선조 37년(1604) 16살에 끌려간 공은 28살 되어서 동래포로 돌아오셨다.

배에서 내린 학산공이 가장 먼저 찾은 일이 어머니의 안부였다. 당시 모부인이신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처지에서서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10년을 넘게 빌었다고 한다.

의서(醫書)에도 지식을 쌓았던 학산공은 고향에 돌아온 첫날부터 토기 간을 구해다 쓰고 의원을 찾는 등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살피니 모부인은 곧 실명에서 회복이 됐다.

광해군(光海君) 8년(1616) 이질(痢疾)로 날로 허약해지는 모부인(母夫人)의 건강 회복을 위해 상분침고(嘗糞晝苦, 부모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변을 직접 맛봄)로 약을 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간 과거를 포기하고 여묘(廬墓)를 하시었다.

3년 여묘 땀 아침저녁 상식을 올릴 때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찢는 호곡을 했다. 이때마다 까마귀 떼가 여막에 날아들어 상제의 더위를 식혀준 일화도 유명하지만 상식(上食)을 지을 물이 없어 고생하는 공(公)에게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가 샘물을 찾아준 얘기는 지금도 밀양지역 효자의 신화(神話)로 전해진다. 초하루 보름마다 묘소를 살폈고 기제사가 돌아오면 한 달간 마음을 다스리고 맵고 냄새나는 채소와 육류를 피했다.

부모를 온전히 모시지 못한 회한(悔恨)으로 과거를 포기한 학산공은 학산정사(鶴山精舍)를 짓고 후학을 일으키는 신념을 평생 지켰다. 학산공은 인조(仁祖) 23년(1645, 을유乙酉) 10월 13일 효(孝)와 절의(節義)를 지켰던 생(生)을 놓았다. 69세. 경남 밀양군 북북면 위랑리 대산 하리 간좌(良坐, 정동과 정북 사이 15도 각으로 썬 자리)에 중간 하리를 배개 삼아 영면에 드셨다.

조배(初配)이신 밀양손씨(密陽孫氏, 승사랑承仕郎 충보忠輔의 따님)와 재배이신 경주김씨(慶州金氏)사이에서 네 아들과 두 딸을 뒀다.

공의 행장은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이 짓고 이조판서(吏曹判書)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허전(許傳)이 비문을 지었다.

유집 학산실기(鶴山實記)는 전해진다. “학산실기”만으로도 학문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효행이 뛰어난 도회(道晦, 학문이나 재주를 감추고 살았던 선비)한 대학자여서 정려(旌閭, 효자 충신에게 왕이 내린 붉은 문을 세워 알림)는 물론 유명 서원(書院)에 배향될 유현(儒賢, 유학에 정통하고 행동이 바름)이셨으나 후손들까지 공의 신념을 지켰다.

몇 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완재정(完在亭)으로 드러난다.

경남 밀양군 북북면 위랑리에 신라 때에 만들어진 위랑못 인근 섬에 학산공의 후손들이 완재정(完在亭)을 짓고 유학(儒學)을 크게 일으켰다.

지난 2006년엔 공의 주손(胄孫)이신 권기덕(權奇德,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대학원장과 전국과총회협의회회장 역임, 1939년생)박사 등 후손들이 300년간 보관해 두었던 유집과 시(詩)를 모은 국역 학산실기를 발간했다. 2011년엔 지난 4백년간 학산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받들었던 후학과 완재정 시심詩心을 정리한 한시 400수와 권감현權甲鉉(동양대학교) 교수의 축시(祝詩)를 묶은 ‘국역 완재정시집完在亭詩集’을 출간했다.

밀양 팔경(八景)이 된 완재정에서 봄가을이 일대 유림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여는 곳이어서 더 유명해졌으며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명소가 됐다.

학산실기(鶴山實記) 국역을 맡았던 송석헌松石軒 권헌조(權憲祖, 1929~2010/ 漢學者) 공이 서문(序文)에서 밝힌 것처럼 어머니가 위독할 땐 대신 죽으려고 하늘에 빌고 상분(嘗糞)으로 섬겼으며 호랑이가 찾아준 여막 샘물 등 10여 가지가 넘는 이적(異蹟) 현상은 보통사람은 한 가지도 이루기 힘든 신비스런 효행(孝行)이다. 안동권씨 천년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고 후손들이 본받을 신화(神話)다.

(자료출처: 국역國譯 학산실기鶴山實記, 국역國譯 완재정시집完在亭詩集,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권율과 이항복



권율 장군

이항복

권율과 이항복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집에서 살았다. 백사(白沙) 이항복 집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가을이면 감이 늘 탐스럽게 열린곤 했다. 그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 권율장군 집 마당으로 뻗어 들어갔다. 세도가 집안이었던 권율장군 집의 하인들은 감을 따 먹었다. 소년 이항복이 이 사실을 알고 꾸짖었으나 하인들은 오히려 감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우겼다.

어느 날 이항복은 권율의 아버지 권철이 있는 방 창문에 주먹을 찢어 넣고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놈아, 당연히 네 것이지 누구의 것이냐”하고 권철이 답했다. 이항복이 다시 물었다.

“저 마당으로 가지가 뻗은 감나무는 누구의 것이니까” 권철은 “그것도 당연히 네 것이 아니냐” 하고 대답했다. 이에 권철은 하인들이 이항복 집의 감을 훔쳐 먹은 사실을 인지하고 하인들을 단속하였고, 이항복의 영특함을 깨달아 아들인 권율에게 장자 이항복을 사위로 삼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장난기 많은 오성 대감 이항복은 종종 고지식한 장인인 권율을 놀렸다고 한다. 정렴결백한 권율은 조복과 의관을 갖춰 입 으면서도 제대로 된 내의를 입지 못하고 늘 배장방이 차림이었다고 한다. 왜란이 끝난 후 병조판서인 이항복과 도원수 권율이 선조 임금 앞에 대궐조화에 참석한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항복은 선조에게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 모두 관복을 벗고 조회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선조가 쾌히 승낙하자 신하들은 모두 관복을 벗었다. 그러나 관복 아래 배장방이 차림인 권율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권율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관복을 벗었으나 배장방이 차림임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선조는 권율을 보고 파안대소하며 비단과 무명을 하사했다고 한다.

성균관 전의 겸 전례사 권정택

충재 권벌과 근사록

충재(沖齋) 권벌(權 𢈶, 1478년 ~ 1548년)은 성품이 검소해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들 동보가 능참봉이었는데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번들번들 살쨍 것을 보고 노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겨우 말직에 있으면서 짐승을 살찌우기 위해 사람을 수척하게 하니 어찌 감히 사람을 구제하기를 바랄 수 있느냐” 하였다. 늘 글 읽기를 좋아해 흑매우



달실마을 정암정

긴절한 성현의 말이나 행실이 쓰인 대목을 보면 반드시 아들과 조카들을 불러서 거듭 거듭 가르쳤다. 늙어서는 <자경편自警編>과 <근사록近思錄>을 더욱 좋아해 언제나 소매 속에 지니고 다녔다. 하루는 종종 이 신하들을 후원에 불러들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두 실컷 즐겁게 놀다가 취한 몸을 부축 받으며 돌아갔다. 뒤에 내시가 후원에서 조그만 책으로 된 <근사록>을 주었다. 임금은 “권벌에게서 떨어진 것이구나” 하고 돌려주라고 명할 정도였다.

권벌은 성품이 온화했다. 한 번은 여종이 밥상을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국을 옷에 쏟아 버렸다. 그림에도 조금도 화를 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시비를 가리거나 변란에 임해서는 얼굴에 의기를 띠며 과감하게 곧장 앞장서는 것이 마치 맹반

(孟賁)과 하육(夏育) 같이 용맹하였다. 명나라 제 11대 황제 가정제嘉靖帝 세종(世宗, 1521~1566)이 궁중에 있는 여종에게 해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권벌은 경연에 나와서 “천자가 만승의 지위를 가지고 도 오히려 하루아침에 천한 여종으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화를 당할 뻔하였습니 다. 전하께서는 중국의 일이라 하여 예사로 생각하지 마소서”라고 임금에게 거침 없이 말했다. 옆에 있던 관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목을 움츠리고 물러났다. 이런 권벌을 보고 이조판서 박열(朴訥)은 “후일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다”고 말하곤 했다. 당시 인물평을 했던 송인수(宋麟壽, 1499~1547)는 “권공은 정말 재상 중의 재상이다”고 평했다. (출처: 연려실기술 편집국장 권병완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 2. 세무업무 기장대리
-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폴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